SmartWhistle
윤리경영 Newsletter 2016년 3월호

1. 최근 동향 및 소식

- 방위사업청, 「제1회 방위사업 청렴성 제고 국제 컨퍼런스」 개최
- 건보공단, '감사자문위' 추진…전문·개방성 강화
- KIC 신임 COO에 김상준 런던지사장 내정, 은성수式 조직개편 신호탄
- 현대엘리베이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최고 등급 획득
- 中 반부패당국 "금융산업에 부패 확산"…고강도 사정 예고

2. 윤리경영 실천 사례

- [네슬레] 공유가치창출(CSV) 모델

3. 청렴 위반 사례

- 특정업체 물품 구매 지시
- 납품업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소개 행위

4. 지식마당

- New COSO Integrated Framework

5. Quiz

6. 관련 행사 및 독자 의견

최근 동향 및 소식

1. 방위사업청, 「제1회 방위사업 청렴성 제고 국제 컨퍼런스」 개최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개청 10주년을 맞이하여 모두가 행복한 청렴문화, 청렴문화에 기반한 방위산업 활성화라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국민과 방산업체, 정부기관이 함께 하는 청렴문화 집중주간을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18일에는 페어플레이 반부패 서약 선포식에 참석하여 각계의 산업협회들과 함께 청렴문화의 방위산업 확산을 위한 서약을 하였다.

19일에는 방위사업청과 방위산업계가 함께 추구하는 청렴문화의 방향성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장기적인 청렴문화 RoadMap을 수립하기 위하여 ‘방위사업 분야 청렴성 강화 방안’이란 주제로 「제1회 방위사업 청렴성 제고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방위사업청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관련기관 협력을 통하여 지속적인 청렴문화 정착 노력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으며, 추상적인 청렴문화가 아닌 방위사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시적 청렴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과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422049&section=sc3

2. 건보공단, '감사자문위' 추진… 전문·개방성 강화

청렴도 등급 1등급을 기록한 건보공단 감사실이 지속가능한 감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감사자문위원회'를 추진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8.8을 받아 1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새로운 10년을 향한 뉴비전 및 미래전략 실행 지원'을 계획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 청렴감사부를 신설

△ 청렴 HOT라인 (상임감사 클린레터, 부패신고, 청탁등록시스템, 익명신고 시스템) 상시운용

△ 시스템감사 수행

△ 내부통제 자율점검(CSA)을 통한 자율성 보장

등이다.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203511

최근 동향 및 소식

3. KIC 신임 COO에 김상준 런던지사장 내정, 은성수式 조직개편 신호탄

한국투자공사(KIC) '은성수호'의 윤곽이 나왔다.
신임 COO임명에 김상준 런던지사장이 내정됐다. 김 지사장의 COO 내정은 은성수 사장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한 혁신의 첫 걸음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감사원 결과 운영 실태 문제점이 공개된 만큼 국내 유일의 국부펀드로서 존립성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은 사장은 KIC의 혁신을 위해 '준법감시인-자체 감사-감독위원회'의 '3중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와 투명경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최고경영자(CEO) 등의 해임요건을 구체화하기 위해 사장과 임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정관에 명시해 임원의 의무를 강화하고 전횡을 방지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특히 부패나 비위행위 등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95265

4. 현대엘리베이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최고 등급 획득

현대엘리베이터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15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 를 획득했다.
2012년 CP를 도입한 현대엘리베이터는 회사 내에 전담조직인 Compliance팀을 신설하고 사내 준법경영 조직을 대대적으로 강화했다.
한편, 현대엘리베이터는 AA등급 인센티브로 향후 2년간 ▲기업지배구조 평가 가점 부여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감경, 1년 6개월 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http://www.ebn.co.kr/news/view/810143

5. 中 반부패당국 "금융산업에 부패 확산"…고강도 사정 예고

중국의 반(反)부패 당국이 최근 금융산업에 부패가 확산하고 있다며 금융부문에 대한 고강도 사정을 예고하고 나섰다.
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는 최근 두달간 금융업계의 부패 실태를 조사한 후 중국공상은행(ICBC)의 일부 간부가 사업 기회를 이용해 불법 수익을 챙겼다며 해외지점에 대한 부적절한 감독이 부패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기율위는 금융부문의 부패사례 증거가 기율위 상급 간부들과 공산당 중앙조직부에 보고됐다며 일부 고위 금융당국자와 국유은행 행원이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율위 조사 대상에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 국부펀드, 국유은행, 증권거래소, 국가외환관리국 등 21개 기관이 포함됐다.
중국공산당 당원은 월수입이 1만 위안(약 181만6천원) 이상이면 수입의 2%를, 수입이 3천 위안(54만5천 원) 미만이면 0.5%를 당비로 낸다. 학생과 실업자는 월 0.2위안(36원)만 내면 된다.
지난 2014년의 경우 당 간부들이 낸 당비는 최소 55억 위안(9천990억2천만 원)으로 추정됐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5/0200000000AKR20160205155200074.HTML

윤리경영 실천 사례

[네슬레] 공유가치창출(CSV) 모델

네슬레(NestlμS . A)는 직원 33만9000명, 연매출 916억 스위스프랑(약 110조원)에 달하는 150년 전통의 세계 최대 식음료 기업이다. 우리에게 친숙한 네스카페(NESCAFR), 캡슐커피머신 네스카페 돌체구스토(NESCAFR Dolce Gusto), 네스퀵(NESQUIK), 킷캣, 거버(GERBER) 등 네슬레가 보유한 브랜드만 2000여 개에 달한다. 매일 제품 10억개 이상이 팔린다.

스위스의 작은 마을 베베(Vevey)에 본사를 두고도 197개국에 진출해 매출의 98%를 해외에서 올린다. 그 저력만큼이나 최근 네슬레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키워드가 하나 있으니, 바로 '공유 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 이하 CSV)'이다. CSV란 '기업이 동시에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개념으로, 2011년 하버드대 마이클 포터의 논문에 소개된 네슬레의 사례는 CSV의 대표 주자이자 성공 모델로 꼽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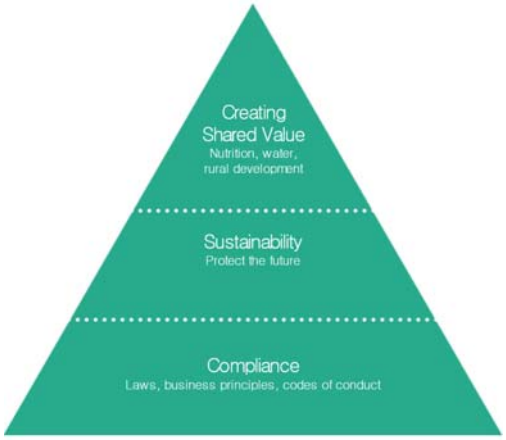
[네슬레의 CSV 모형}

"공유가치창출은 법률과 윤리강령 그리고 네슬레 기업 경영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동시에 후대를 위해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의식에 근간을 두고 있다."

폴 불케 네슬레 CEO (Paul Bulcke, CEO, Nestlé)

네슬레의 CSV 모형은 피라미드 형태로 구성된다. 피라미드 제일 아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1단계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준법 경영)'다. 기업이 지켜야 할 기본적 비즈니스 원칙, 법, 행동 수칙 등을 말한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미래 세대를 희생하면 안 된다는 비전이 바로 2단계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그 다음 3단계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CSV'다. 준법 경영이 지켜져야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을 논의할 수 있고, 'CSV' 실행이 가능하다. CSV를 위해선 준법 경영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네슬레의 CSV 피라미드 모형]

네슬레는 영양, 물, 농촌 개발, 환경 지속 가능성, 인권 등 5가지 영역에서 사회를 위한 다양한 CSV(공유가치 창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코코아 및 커피 농가가 고품질의 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 기술력을 높였다. 농가 수입 증대는 물론 소비자의 만족도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전략이다. 물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멕시코 공장을 운영하는 등 물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규제도 강화하고, 주주 및 비영리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CSV 포럼을 개최해 전략에 반영하고 있다.

조선닷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07/2015120702023.html

네슬레 코이라 홈페이지
http://www.nestle.co.kr/

청렴 위반 사례

1 특정업체 물품 구매 지시

모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청 A과장은 사무실에 복사용지 등이 필요함을 알고 서무 담당 직원을 불러 주로 공공기관에 문구류를 납품하고 있던 ○○문구와 500여만 원 상당의 복사용지 등 물품 구입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함.

시사점 : 상급자는 하급자(담당직원)에게 부당한 절차에 의해 물품을 납품 받을 것을 지시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고, 담당직원은 상급자의 지시가 부당한 것임을 알고 소명 후 지시에 따르지 않았으나, 재차 반복된 지시에 대하여는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이를 행동 강령책임관과 상담 없이 부당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위반임(제4조 1항 및 2항)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2 납품업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소개 행위

모 기초자치단체 A 부군수는 산악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인조잔디 납품업자로부터 군 공설운동장에 자기 회사의 인조잔디가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자, 군청 담당과장을 부군수실로 호출하여, 위 잔디납품업자를 담당과장에게 소개 시켜주면서 잔디를 납품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적절히 이용하여 도와주라고 말함

시사점 : 비록 부군수가 위 업자로부터 일체의 금전을 수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를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소개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위반임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지식마당

New COSO Integrated Framework

내부통제에 대한 논의는 주로 미국에서 이루어졌으며 1940년대 중반까지의 내부통제의 개념은 그 범위가 회계실무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이후 점차 범위가 확장되었으며, 내부통제의 개념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게 되자 내부통제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를 비롯한 5개 민간 회계기관이 참여하여 COSO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를 설립하였다.

1992년 COSO는 "내부통제의 포괄적 틀 (internal control – integrated framework)"이라는 보고서(COSO 보고서)를 발표하여 내부통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내부통제의 표준으로 여겨져 기업을 비롯한 영리 조직뿐만 아니라 관공서, 병원과 같은 비영리 조직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COSO 보고서는 SEC final rule이나 PCAOB 기준에서 준용할 만큼 내부통제에 관하여 미국의 표준으로 역할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표준으로서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

COSO Framework은 1992년 Integrated Framework 발표 이후 2004년 ERM Framework을 거쳐 2013년 기존의 Integrated Framework에 대한 개선안인 New COSO Integrated Framework 까지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왔으며, COSO cube 상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Financial Reporting 목적의 용어가 Reporting으로 변경
   - Reporting 목적의 범위가 비재무적인 보고 및 내부보고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
2) Monitoring 구성요소의 명칭을 Monitoring Activities로 변경
   - Monitoring 구성요소의 의미를 통제활동 측면에 집중하는 것을 방지
3) 조직구조를 Entity Level, Division, Operating Unit, Function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내부통제 5가지 요소인 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와 의사소통, 모니터링 활동이 전사 조직에 적용

<1992년과 2013년의 COSO cube 비교>

1992년의 COSO cube

2013년의 COSO cube

COSO cube 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존의 COSO와 2013년 개정된 New COSO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효과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17가지의 원칙(Principles)들을 정의한 것이다.

지식마당

New COSO에서 정의한 17가지 원칙들은 내부통제 5가지 구성요소 별로 다음과 같다.

(1) 통제환경

[원칙 1] 조직은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한 책임을 실천한다.

[원칙 2] 이사회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여 내부통제의 정비 및 운영상황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원칙 3] 경영진은 이사회의 감독아래, 내부통제의 목적달성을 위한 조직구조, 보고체계 및 책임을 설정한다.

[원칙 4] 조직은 내부통제의 목적에 따라 능력 있는 구성원을 채용, 육성한다.

[원칙 5] 조직은 내부통제의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 구성원 각자가 자기의 내부통제제도상 책임을 명확히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한다.

(2) 위험평가

[원칙 6] 조직은 내부통제의 목적과 관련된 위험을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명확한 내부통제의 목적을 설정한다.

[원칙 7] 조직은 내부통제 목적 달성과 관련된 조직 전반에 걸친 위험을 식별하고, 동 위험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토대로서 관련 위험을 분석한다.

[원칙 8] 조직은 내부통제의 목적달성과 관련된 리스크를 평가함에 있어 부정의 가능성을 고려한다.

[원칙 9] 조직은 내부통제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를 인식하고 평가한다.

(3) 통제활동

[원칙 10] 조직은 내부통제의 목적달성을 저해하는 위험을 수용가능한 수준까지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활동을 선택하고 정비한다.

[원칙 11] 조직은 내부통제의 목적달성을 위해 기술과 관련된 전산일반통제활동을 선택하고 정비한다.

[원칙 12] 조직은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 그러한 정책에 영향을 주는 관련절차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제활동을 수행한다.

(4) 정보 및 의사소통

[원칙 13] 조직은 내부통제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능을 지원하는 관련성이 있고, 질이 높은 정보를 획득하거나 작성하여야 한다.

[원칙 14] 조직은 내부통제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조직내부에 전달한다.

[원칙 15] 조직은 내부통제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사항과 관련된 외부관계자와 정보를 교류하여야 한다.

(5) 모니터링 활동

[원칙 16] 조직은 내부통제의 구성요소가 실재하고, 제제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신을 갖기 위한 일상적 그리고 독립적 평가를 선택하여 적용, 실시한다.

[원칙 17] 조직은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를 포함하여 미비점의 시정조치를 수행할 책임을 지는 당사자에게 내부통제의 미비점을 적시에 평가하여 전달한다.

조직의 내부감사인 및 내부통제 책임자들은 New COSO에서 정의한 17가지 원칙들을 참조하여 조직의 내부통제 체계의 효과적 구축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Internal Control — Integrated Framework (2013)
http://www.coso.org

Quiz

1. '기업이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한다 ' 는 개념으로, 2011년 하버드대 마이클 포터의 논문에 소개된 네슬레의 사례를 통해 널리 알려진 모델의 이름은?

① CSR ② CPI

③ CRS ④ CSV

2. 다음 중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받은 경우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불응할 수 있다.

②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받은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모든 지시내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고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지시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3. 내부통제의 5가지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재무보고 ② 모니터링 활동

③ 위험평가 ④ 정보 및 의사소통

4. 다음 중 경제5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곳은?

① 전국경제인연합회

② 한국무역협회

③ 중소기업중앙회

④ 소공인진흥협회

과월호 Quiz 정답 및 해설

1. 답 : 2 (부패인식지수)

2. 답 : 2 (직무관련업체 대표인 고향 후배에 대한 경조사 통지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3. 답 : 4 (BS 10500 - 영국의 뇌물방지경영시스템 표준)

4. 답 : 3 (4대 백신 프로젝트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실시간 부패감시‘, 대규모 자산운용기관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상시적 정보공유 및 연계‘, 내부통제 장치 강화 등 '클린시스템 도입'이다.)

관련 행사

1. UN글로벌콤택트, '페이플레이 반부패 서약 선포식' 개최

유엔글로벌콤택트 한국협회는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페어플레이 반부패 서약 선포식'을 열었다.
엘지(LG)·롯데·케이티(KT) 등 국내 55개 기업들이 유엔 주도의 반부패 서약에 참여하여 청렴한 기업문화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1056.html

2. 거래소, '컴플라이언스 대상' 시상식 개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월 29일 '2015년도 컴플라이언스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내부통제 우수 부문에서 한국투자증권·HMC투자증권·삼성선물이, 증권분쟁예방 우수 부문에서는 SK증권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stock/201601/e20160129093706141580.htm

3. 전경련, '제1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개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윤리경영 관련 지표 및 해외 선도기업 사례를 통해 올해 9월 시행이 예정된 김영란법의 주요내용인 반부패와 뇌물수수 방지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경련은 26일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2016년도 '제1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열고 우리 기업들의 윤리경영 방안을 논의했다.
해외 선도기업들은 임직원 교육, 행동강령 운영여부 등 윤리경영 관련 기업활동의 세부 목표와 성과를 지속가능보고서 등을 통해 외부에 적극적이고 폭넓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203511

4. 2016년 제12회 투명경영대상 시상식

경제5단체 공동주관 2016 제12회 투명경영대상 시상식이 열린 18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렸다.
투명경영 대상은 교보생명이 받았다. 국내 기업 가운데 가장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펼친 기업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투명경영대상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가 선정하는 것으로 금융업계에서 대상을 받은 것은 교보생명이 처음이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85319

독자 의견

본 뉴스레터와 관련된 건의 및 개선사항이 있으시다면, 메일(advisor@jcons.co.kr)로 의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